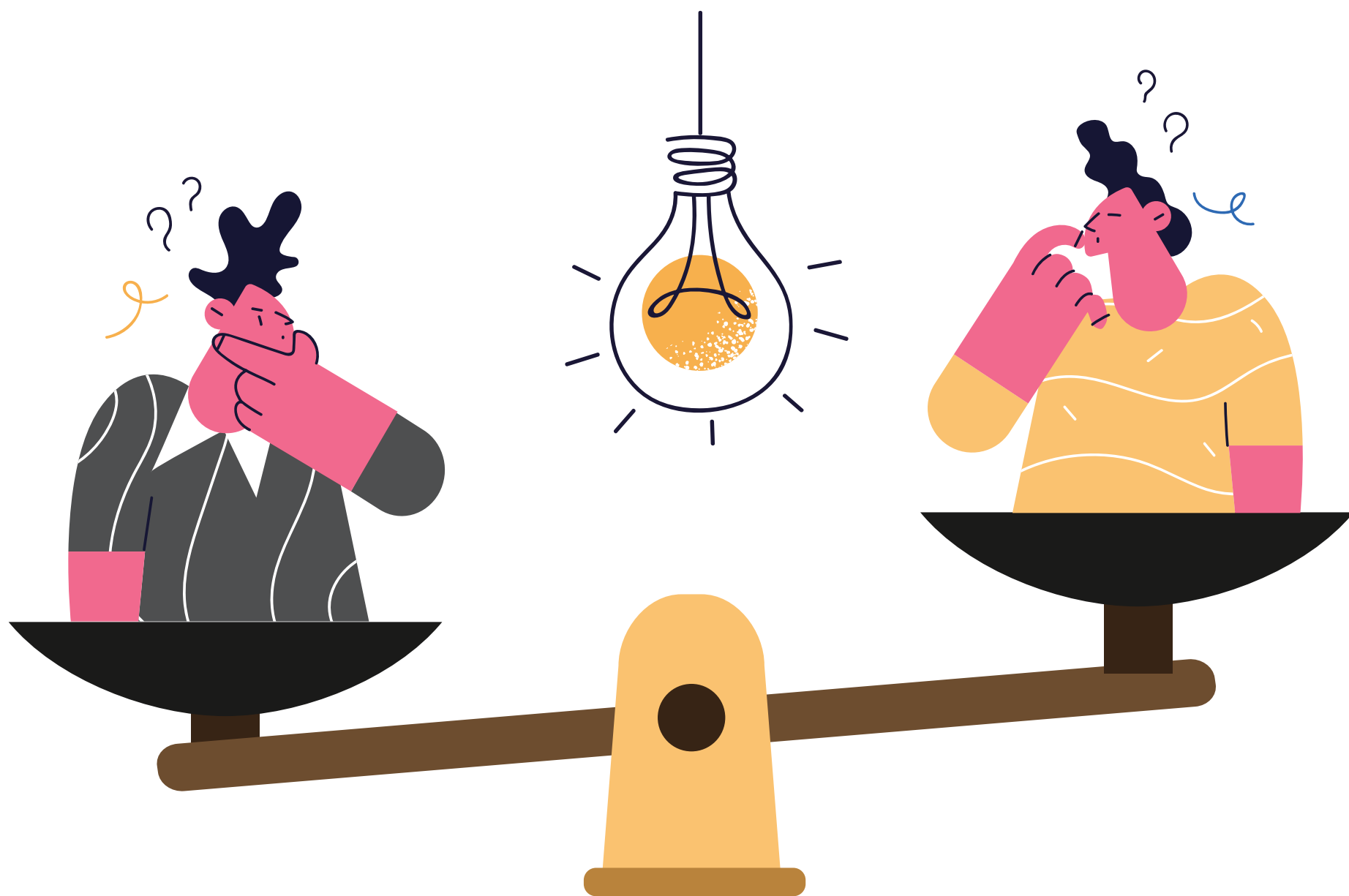


• 성불평등지수(GII)로 살펴보는 •

한국 여성의 일과 삶



※ 이 콘텐츠는 성불평등지수에 관한 통계청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카드뉴스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란?



성불평등지수(GII)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0년부터 각국의 성불평등성(Gender Inequality)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지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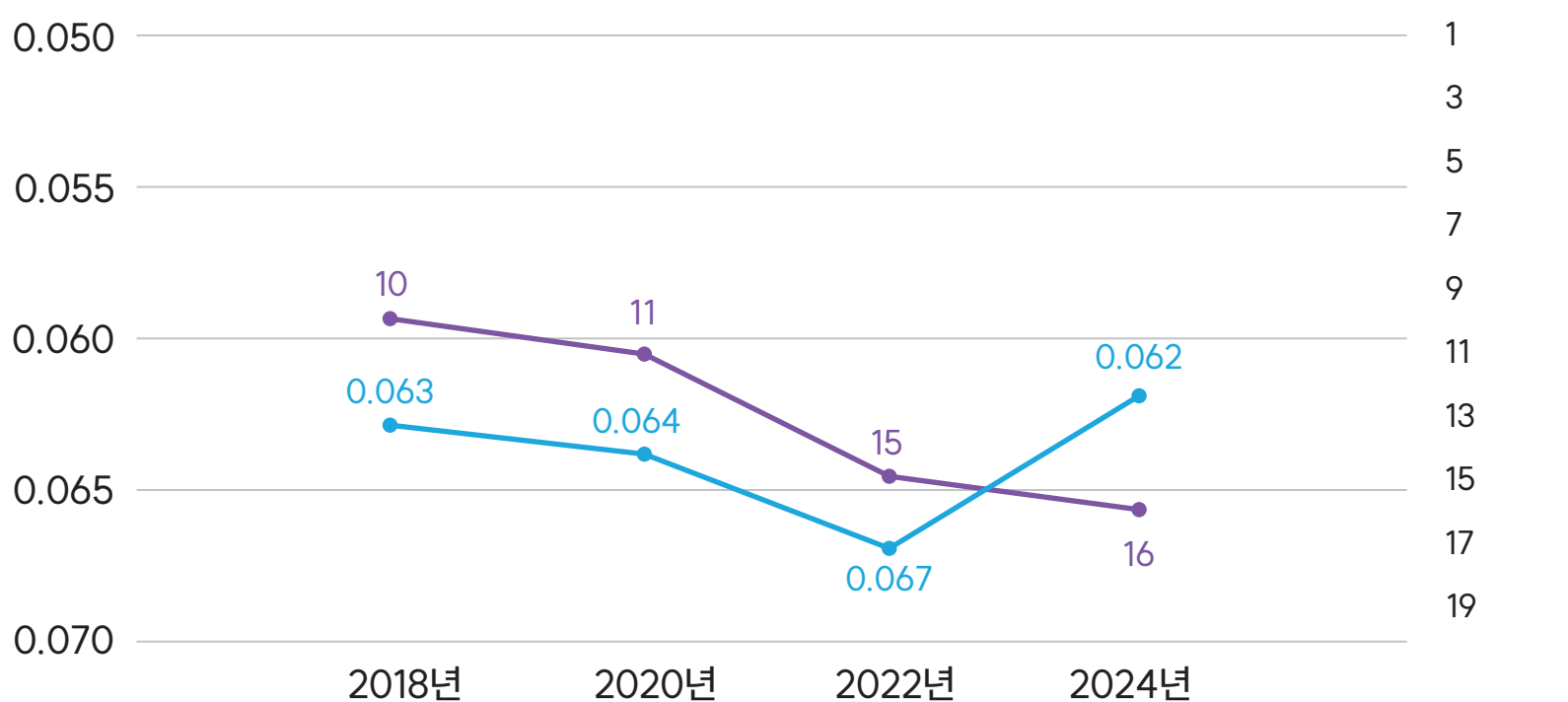
생식 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 권한(Empowerment), 노동 참여(Labour market) 3개 부문에서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5개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지수(GII) 평가 자료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국제의회연맹(IP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등을 통해 자체 수집하며, 구성 지표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각 국가의 데이터 적용시점이 상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불평등지수(GII)현황

[그림1] 한국의 성불평등지수(GII) 점수 및 순위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불평등지수(GII)” 자료 재구성

주석: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

— 점수
— 순위

2024년 우리나라는 총 193개국 중 16위로, 2022년 대비 1단계 하락(2022년 191개국 중 15위)했습니다.

성불평등지수(GII) 점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4년 0.062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성불평등지수(GII) 영역별 성별 격차

1) 생식 건강 영역

생식 건강 영역의 경우, 모성사망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0명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출산율은 2018년 1.6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표1] 생식건강 영역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2018	2019	2020	2022
순위		10	10	11	16
대상국가		189	189	189	166
점수		0.063	0.058	0.064	0.067
생식 건강	모성사망비(명)	11.0	11.0	11.0	11.0
	청소년 출산율(명)	1.6	1.4	1.4	2.2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불평등지수(GII)” 자료 재인용).

주석: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

모성사망비: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하여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 수



성불평등지수(GII) 영역별 성별 격차

2) 여성권한 영역

여성권한 부문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18년 17.0%에서 2022년 19.0%로 증가했습니다.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인구 비율은 여성은 2018년 89.8%에서 2022년 83.1%로 감소, 남성은 2018년 95.6%에서 2022년 93.1%로 감소했습니다. 2022년 기준 중등교육 이상 받은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0% 낮습니다.

[표2] 여성권한 영역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2018	2019	2020	2022
순위		10	10	11	16
대상국가		189	189	189	166
점수		0.063	0.058	0.064	0.067
여성 권한	여성의원 비율(%)	17.0	17.0	16.7	19.0
	중등교육 이상 받은 여성인구 비율(%)	89.8	89.8	80.4	83.1
	중등교육 이상 받은 남성인구 비율(%)	95.6	95.6	95.5	93.1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불평등지수(GII)” 자료 재인용)

주석: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비율: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성불평등지수(GII) 영역별 성별 격차

3) 노동참여 영역

노동참여 영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여성은 2018년 52.2%에서 2022년 53.4%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비교하여 약 20% 낮은 수치입니다.

[표3] 노동참여 영역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2018	2019	2020	2022
순위		10	10	11	16
대상국가		189	189	189	166
점수		0.063	0.058	0.064	0.067
노동 참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2.2	52.8	52.9	53.4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73.2	73.3	73.1	72.4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불평등지수(GII)” 자료 재인용)

주석: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10이면 완전 불평등



- ◆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관리직 여성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확대 및 활용 제고, 경력보유
여성의 취업 연계 강화, 남성 편중 직종(기술분야 등)의
여성 채용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